



윤석열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뉴스시스

尹 “우리 모두가 광주시민...오월정신, 통합 주춧돌”

“오월정신, 자유와 인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저항”
 “5·18 계승은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 위한 출발”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희망 잃지 않은 용기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시민”이라고 말했다. 또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새 정부에서도 이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을 드립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 관련 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는다”며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민주 영령들

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에 숙연한 마음으로 섰다”고 했다.
 이어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빌다”면서 “가족과 이웃, 벗을 잃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 시민들을 향한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승계해야 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

법 정신 그 자체”라며 “오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광주와 호남을 향한 애정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

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호남 시민들에 말하며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가길 약속한다”고 했다.
 또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오월 정신을

묵묵히 이어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김용범 기자

여야, 광주서 표심 공략
 국힘 “선거·예산 전폭 지원”
 민주 “군공항·시단지 속도 ↑”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날인 18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지방선거 표심 공략에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기념식이 끝난 뒤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 지역 공약 약속과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 치평동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시장 선대위 연석회의에서 “14명의 광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열심히 뛰어서 광주 정치지형을 바꾸겠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주는 민주당 텃밭으로 30년간 민주당 일당 독점정치로 인해 호남정치의 호남경제를 가로막고 있다. 광주에서 국민의 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주문한 뒤 “광주발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3차 회의에서 특별법을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서둘러 마련하고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특히 광주와 전남의 핵심 환안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회를 통해 정부와 논의하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역발전 공약과 예산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인공지능 특화단지 등을 통해 잘 사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다.
 /김도기 기자

전남 중등관광시장 개척	2면
21일 한미정상회담	3면
올해 성장률 하향	4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